



# 국제플라자 뉴스



공익재단법인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880-0805 宮崎市橘通東4-8-1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Tel:0985-32-8457 Fax:0985-32-8512 Homepage:http://www.mif.or.jp E-mail:miyainfo@mif.or.jp  
개관시간:오전10시~오후7시 (화요일~토요일) 휴관일:일·월·공휴일, 연말연시 (12월29일~1월3일)

## 토요일 영어챗트 후기 초급 ※사전신청 필요

초심자 대 환영 회화수업

토요일오전은, 영어로 회화를 즐겨봅시다!

(※영어 챗트는 영어교실이 아닙니다. 또 외국인 자원봉사자분도 영어권 외국분들만 계신건 아닙니다.)

◇일 시 : 10/19,11/2,11/16,11/30,12/14,1/11,1/25,2/8

토요일 총 8회 10:30~11: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영어챗트 초급」로 써주세요.

◇마 감 : 9월28일(토)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토요일 영어챗트 후기 중 상급 ※사전신청 필요

지금까지 학습 한 영어를 사용하여,다양한 나라의 사람과 영어로 이야기 합시다!

(※영어 챗트는 영어교실이 아닙니다. 또 외국인 자원봉사자분도 영어권 외국분들만 계신건 아닙니다.)

◇일 시 : 10/12,10/26,11/9,12/7,12/21,1/18,2/1,2/15

토요일 총 8회 10:30~11: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영어챗트 중 상급」로 써주세요.

◇마 감 : 9월28일(토)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국제 후레아이 챗트 한국어 후기 초급 ※사전신청 필요.

이제 막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분들 대상입니다. 미야자키현 국제교류원의 박유진씨와 한국인 자원봉사자분과 한국어 세계에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일 시 : 11/7,11/21,12/5,12/19,1/16,1/30,2/13,2/27

목요일 총 8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마 감 : 10월24일(목)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한국어챗트 초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국제 후레아이 챗트 한국어 후기 중 상급 ※사전신청 필요 .

한국어 학습경험이 있는 분들 대상입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와 한국어로의 대화를 즐겨보지 않겠습니까?

◇일 시 : 10/17, 10/31, 11/14, 11/28, 12/12, 1/23,

2/6, 2/20

목요일 총 8회 18:30~19:30

◇장 소 : 카리노 미야자키

◇정 원 : 15명

◇수강료: 찬조회원 학생 2,000엔(8회)

비회원 4,000엔(8회)



◇마 감 : 9월28일(토)

◇신청방법 :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전화,팩스 또는 메일로 보내주세요.메일·팩스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목을 「한국어챗트 중 상급」로 써주세요.

◇신청·문의 :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강좌·초급 ※사전신청 필요

현내 재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어 초급강좌를 개최합니다. 꼭 참가해주세요.

◇대 상: 처음으로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 히라가나, 가타카나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

◇수강료: 무료

◇교재비: 2,160엔 (세금 불포함)

◇일 시: 9월3일(화)~11월28일(목)

10:10~12:00

매주 화요일 목요일 총 25회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신청·문의: (공재) 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일본어 연습 ※자유 참가, 무료

◇일 시: 10:30~11:30

[수요일] 8/7, 8/21, 8/28

[금요일] 8/2, 8/9, 8/23, 8/30

※8/14, 8/16휴강

◇장 소: 카리노 미야자키 지하1층

◇문 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찬조회원모집!

연회비 2,000엔 단체:10,000엔



## 제14회 아트 페스티벌

### ~외국인이 본 미야자키 작품전~ 개최 결정!

이번에도 미야자키현 내에 재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일본인이지만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분들의 사진·서예·회화·수공예품 그 밖의 부문으로 아트 작품을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훈훈한 작품을 기다리겠습니다.

◇응모자격: 원칙적으로 미야자키에 살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에 뿌리를 둔 분

◇부 문: 사진, 회화, 서예, 수공예·기타  
(작품의 테마는 “미야자키”)

◇출품가능 작품수: 1인당 2점 이내

◇사이즈: 50cm×50cm이내

◇응모마감: 10월19일(토)

◇신청·문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대만과의 민간교류촉진사업 참가자 모집

문화·예술과 스포츠 등 분야에서 대만의 민간단체와의 교류를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께, 미야자키현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신주현과 도원시의 분들과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 용:

미야자키측의 단체대표자를 대만에 파견하고 대만측의 단체대표자를 미야자키에 초대하여, 교류실현을 위한 협의 등을 실시합니다.



◇일 정(예정):

미야자키측 대만 파견: 2019년 12월18일(수)~21일(토)  
대만측 미야자키 방문: 2020년 2월5일(수)~2월8일(토)

◇모집단체: 3 단체(1단체당 2명 까지)

◇참가비: 40,000엔

◇마 감: 8월 16일(금)

※신청방법은 미야자키현 ‘All 미야자키’ 영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미야자키현 ‘All 미야자키’ 영업과  
국제교류·여권담당 0985-44-2623

## 제주 외국인 일본어 스피치 콘테스트 참가자 모집!

◇테 마: 「나와 일본」

◇참가자격: ①현내재주의 16세 이상 외국인 일 것.  
②모국어가 일본어가 아닐 것.

◇부문·정원: 일반부, 학생부 (총 10명)

◇표 창: 각 부문 우수자에게는 상장 및 상품을 수여합니다.(오디언스상 있음)



◇응모마감: 10월18일(금) 필착 ※응모자 다수의 경우 선발

◇응모방법: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고와 함께 우편, Fax, E-mail(miyainfo@mif.or.jp)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로마자도 가능, 3~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 ※소품 등 사용금지

◇응모·문의: (공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 지역별 행사

### 《다노초(田野町)》제27회 다노초 다이코 페스티벌

다노정 지역의 전통 예술인 ‘아메타이코’의 연주와 불꽃놀이가 어우러진 박력 넘치는 이벤트!!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 시: 8월 31일(토) 16:00~21:00

◇장 소: 미야자키시다노 운동공원 다목적 광장

◇문 의: 타노종합지소지역시민복지과

Tel:0985-86-1111



## 편집후기

최근에는 봉오도리가 많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쇼와 시대에는 지역별로 봉오도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후쿠오카 출신이어서 봉오도리라고 하면 탄코부시(일본의 민요)가 떠오릅니다. 북미 캘리포니아의 불교 사원에서 개최하는 봉오도리에서도 탄코부시(일본의 민요)는 제일로 손꼽히는 곡입니다. 유카타 복장을 갖춰입은 사람은 적지만, 가족의 이름을 프린트한 티셔츠와 핫피(일본 축제 의상)를 똑같이 맞춰입고 원을 만들어 춤추는 모습에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선조분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문화는 세대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인상 깊게 느꼈었습니다. 최근 축제에서 훌라댄스와 벨리댄스 등의 퍼포먼스가 자주 보이게 되어, 다문화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다문화 공생을 찾아보는건 어떨까요? Y

## 미소:미야자키의 소소한이야기

봉준호



국제교류원 박유진

여러분들은 영화 좋아하시나요? 일본에서 한국 예능, 노래, 드라마는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그에 반하면 한국 영화는 아직 일본에서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이번 8월 칼럼은 여러분들께 한국 영화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작품은 바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작품으로, 한국의 양극화 된 빈부격차 사회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면서 사회 속 계급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 기생충을 보지 못했지만, 봉준호 감독의 작품이라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한국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감독으로, 완성도 높은 작품과 미장센 연출이 뛰어나 소품의 배치, 주인공의 이름 등 작품 속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는 감독입니다. 한국에는 봉준호 감독 이외에도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는 영화 감독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국의 영화감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피서를 가는 것도 좋지만, 시원한 곳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여름을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